

김경진 교수의 섬기는 자 예수 이야기, 누가복음 이해하기

## 10.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

(눅 4:14-30; 6:20-26; 14:7-14)

※ 오늘의 포인트

- (1) 누가복음에서의 가난의 의미
- (2) 예수님의 취임설교(4:14-30)
- (3) 평지설교(6:20-26)
- (4) 잔치석상에서의 교훈(14:7-14, 21)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을 통하여 신약성경의 28%를 기록한 누가는 분량 면에 있어서 바울 사도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방대한 양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사실 누가는 바울 사도만큼 인정받거나 이해되지 못하여왔고, 특별히 신학자로서 그의 신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그 이유는 그가 쓴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교훈을 기록한 것이기에 그 자신의 말이 될 수 없다고 보았고,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은 역사서(歷史書)로서 역시 저자 자신의 주장이 개입할 수 없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오늘날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먼저 첫 번째 주장의 경우, 누가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복음서 기자들 역시 단순한 자료의 수집가나 편집자가 아니라, 그 자료들을 나름대로의 신학적 의도와 목적을 갖고 정리하고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신학자로 간주하는 것이 오늘날의 일반적 경향이다. 두 번째 주장의 경우, 사도행전은 엄밀한 의미에서 완전한 역사서가 아니다.<sup>1)</sup> 사도들에 관한 역사서라면 열두 사도 가운데 오직 베드로와 바울 두 사도만의 복음전도 사역을 기록하였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sup>2)</sup> 사실 누가는 역사서를 쓸 목적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의 기록목적은 하워드 마셜(H. Howard Marshall)이 일찍이 바르게 지적한 것처럼 ‘복음 전도적’이었다.<sup>3)</sup> 즉 예수님이 갈릴리 시골에서 전파한 그 복음이 유대나라의 수도 예루살렘을 거쳐 어떻게 당대의 세계의 수도인 로마에까지 전달되었는가를 기록하는 것이 그의 주요 목적 중 하나였을 것이다. 어쨌든 신약성경의 4분의 1 이상을 기록한 누가와 그의 두 권의 저작인 누가 행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는 신약성경을 온전히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의 신학을 중요시여기는 것처럼, 이제는 누가의 신학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될 것이다.

누가복음은 신약성경 가운데 가장 긴 책으로, 분량이 많은 까닭에 그 담긴 내용도 매우 풍부하고 다양하다.<sup>4)</sup> 다른 복음서, 특히 그 내용이 유사한 공관복음서 중 마가, 마태복음과 비교해

1) 이런 측면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어떤 학자들은 누가의 역사 언급은 그의 신학적 목적에 수단적으로 이용되었을 뿐으로 그 자체가 역사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Hans Conzelmann, *The Theology of St. Luke*(London: Faber & Faber, 1961), pp. 167-169.

2) R. E. O. 화이트, 김경진 역, 『누가신학 연구』(한국로고스연구원, 1995), pp. 11-12.

3) I. Howard Marshall, *Luke: Historial and Theologian*(Exester: Paternoster, 1970), pp. 216-222. 국역본: 이한수 역, 『누가행전』(엠마오, 1993). 참고 김경진, “누가의 선교신학”, 『신학과 목회』(장상선박사 교회 기념 논문집: 기독교신학대학원대학교, 1999), pp. 244-248.

볼 때 두드러지는 누가복음의 특징을 성경학자들은 대개 여섯 가지 정도로 구분 짓는다: 보편주의,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 빈부문제와 관련된 구체 명령, 성령과 기도에 대한 각별한 관심, 여자의 향상된 위치 등. 사실 공관복음은 그 내용이 유사함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으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특별자료, 그리고 유사한 기사(記事; narrative)나 말씀이라 할 지라도 저자 자신의 해석이 담긴 내용들은 분명히 다른 복음서들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저자 자신의 신학을 증거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누가의 두 권의 저작 중 제 일 권에 해당하는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하여, 다른 복음서에서 발견되지 않는 그만의 독특한 신학사상 가운데 특히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에 대하여 집중하여 연구하려 한다.

## 2. 누가 가난한 자인가?

누가복음은 특별히 소외된 자들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소외된 자들이라 하면 우리는 흔히 사마리아인을 포함하여 이방인이나 세리, 창기 등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소외된 자의 대표적 존재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가난한 자들이고, 따라서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학자들은 이 복음서를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the Gospel for the Poor)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왜 누가복음이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라 불리는지, 또한 저자 누가는 왜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누가복음에서의 가난의 의미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을 다룸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누가복음에서 가난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난은 부유와 반대되는 단어로서 이해되는 경제적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교회에서 가난을 말할 때, 대개 이를 경제적인 의미로만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설교」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라는 구절 때문이다. 마태복음의 이 구절에서 가난은 분명 영적이고 윤리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오히려 문자가 의미하는 바 경제적 의미와는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3절과 병행이 되는 누가복음 6장 20절은 마태복음 본문과는 다르게 ‘심령이’(in spirit)라는 단어가 빠져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이 단어의 생략은 사실상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성격의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 마디로, 마태복음에서의 가난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이고 윤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반면,<sup>5)</sup> 누가복음에서의 가난은 문자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신학의 이런 측면은 다음의 세 가지 내용을 통해 지지를 받는다.

**첫째, 예수님의 나사렛에서의 취임설교에서 인용된 이사야서 말씀.** 예수님의 취임설교는 뒤에 가서 좀더 자세하게 그 배경과 의미를 논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이 단원의 내용에 적절하게 예수님이 인용한 이사야서 말씀만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예수님의 취임설교의 핵심이 되는 4장

4) 누가복음 전체 24장에 총 1149절이다. 그 가운데 마가복음에서 350절, 마태복음과 중복되는 공동전승에서 온 것이 235절이고, 그 나머지 564절은 누가만의 특별자료이다. 그런데 이 특별자료는 특별히 누가복음의 중앙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여행기사」(Travel Narrative; 9:51-19:27)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5) 알렌 버히, 김정진 역, 『신약성경윤리』(서울: 솔로몬, 1997), pp. 186-187. 사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겸손(humble, meek)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8절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을 예수님이 인용한 것이다.<sup>6)</sup> 그런데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1절을 있는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일부를 생략하여 인용한 것으로 누가가 기록하였다는 점이다. 생략된 부분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이다. 그 외에 포로 된 자, 갇힌 자(눌린 자)는 누가복음에도 그대로 등장한다. 그러면 누가는 왜 이사야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그 중 “마음이 상한 자”만을 제외시켰을까? 아마도 그 이유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포로 된 자와 갇힌 자와는 다르게 마음이 상한 자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사실 부유하고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마음이 상할 수가 있다. 따라서 누가는 실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명의 성격에 부합하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나름대로 조정했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누가가 예수님의 취임설교에서 이처럼 ‘마음이 상한 자’를 생략하여 인용하였다는 것은 그가 제시하는 가난의 의미가 결코 마태복음에서처럼 영적이거나 윤리적이 아니라 문자적이고 실질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와 함께 우리가 고려할 사항이 한 가지 있다. 누가복음 4장 19절은 18절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사야 61장에서도 그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누가는 이사야 61장 2절을 전부 인용하지 않고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란 부분을 생략하고, 그 대신 이사야 58장 6절에 나오는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를 추가하고 있다. 이런 변화를 통하여 누가는 심판과 복수의 주제를 제외시키고, 은혜의 해, 즉 희년의 해방과 석방을 강조한다. 이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성격과 매우 잘 부합한다.

**둘째, 가난한 자들의 목록.** 누가는 그 복음서에서 가난한 자들의 목록을 다섯 번 언급하고 있는데, 그 때마다 가난한 자들은 실제로 억눌리고 고통 받으며 신체적으로 불우한 사람들과 함께 등장하고 있다:

- 4:18 : 가난한 자, 포로 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 6:20-22 : 가난한 자, 주린 자, 우는 자, 핍박당하는 자
- 7:22 : 소경, 앓은뱅이, 문둥이, 귀머거리, 죽은 자, 가난한 자
- 14:13 : 가난한 자, 병신, 저는 자, 소경
- 14:21 : 가난한 자, 병신, 소경, 저는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불우(不遇)하고 어려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됨이 옳을 것이다. 아울러, 이들 목록에서 가난한 자는 한 번만 제외하고는 항상 목록의 처음에 소개되고 있고, 예외인 그 한 번의 경우에서도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소개되고 있음을 놓고 볼 때,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자는 사실상 기타 다른 불우하고 어려운 형편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포용하는 대표적 존재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sup>7)</sup> 다시 말하면, 소경, 앓은뱅이, 귀머거리, 문둥이, 병신, 저는 자 등은 자기 힘으로 일하여 생활할 수 없는 자들로써 사실상 거지요, 구걸에 의존할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이었다.<sup>8)</sup> 어의(語義)적으로 볼 때

6) 4장 18절의 마지막 부분인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는 이사야 58장 6절에서 비롯되었다.

7) 4장 18절의 이런 특징을 에반스는 매우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This could either stand as a heading with a full stop after it, the subsequent statements being different ways of saying the same thing, or be the first, if principal statements, to be followed by additional specifications of what was involved in Jesus' mission”(Saint Luke, p. 270).

ptwco,j(프로코스)는 ‘기다’, ‘굶실거리다’, ‘움츠리다’로 번역되는 ptw,ssw(프로쏘)에서 유래되었다. 따라서 문자 그대로 ‘거지’로 번역되는 말이다.

결과적으로 가난한 자는 불우한 자들의 특징을 대표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그 밖에 다른 용어들은 가난한 자의 구체적 실례로서 소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네 번의 목록 가운데 4장 18절과 14장 13절의 목록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것이고, 14장 21절의 경우도 마태복음의 병행구절(마 22:10)에 나오는 ‘악한 자나 선한 자’ 대신 가난한 자의 목록이 등장하는 것을 참작할 때, 우리는 누가가 다른 복음서 기자들보다, 최소한 마태보다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각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예수님 탄생 시 방문한 인물들.** 예수님이 탄생하였을 때, 주지하는 대로 마태복음에서는 먼 이방나라에서 동방박사들이 찾아와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다(마 2:1-12). 이들 동방박사들이 경제적 여건이 대단히 힘들고 어려웠을 고대 세계에서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었다는 것과 또한 그들이 예수님께 드릴 선물로 가져온 황금과 유향과 몰약 역시 결코 값싼 물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놓고 볼 때 그들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sup>9)</sup> 요컨대, 예수님 탄생 시 마태복음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이처럼 부유한 동방박사였다는 사실이다.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부유한 동방박사들 대신 가난하고 천한 목자들에게 구주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천사들을 통하여 전달되었다(눅 2:8-20). 예수님 당대에 목자들은 “대부분 파렴치하고 도둑이 심했으며, 그들의 가축을 남의 땅으로 몰고 다녔을 뿐만 아니라 그 가축에서 나온 소산을 착복하기도 했던 까닭에 ‘도둑질과 같은 직업’, 즉 사람들을 부정직하게 만드는 직업이라서 자기 아들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려고 했던 직업”으로 분류되었다.<sup>10)</sup> 따라서 이런 나쁜 평판에 비례하여 그들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된 삶을 살았다. 이처럼 사회의 밑바닥 계층에 속했던 이 가난하고 천박한 목자들에게 우주의 왕이신 구주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제일 처음 전달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져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기왕의 인간 세상의 질서와는 전혀 다를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나라가 그 동안 견지해온 가치관과 질서를 철저히 뒤바꿔 놓을 것이고, 이런 진리를 우리는 흔히 ‘운명의 역전’(reversal of fortune)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sup>11)</sup>

이상에서 예수님 탄생 시 방문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마태복음은 여유 있고 넉넉한 분위기인 반면, 누가복음은 가난하고 조금은 부족한 듯한 인상을 갖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누가복음 초두(初頭)에 기록된 목자의 등장은 구주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성격과 장차 누가복음의 전개 방향에 대하여 일종의 암시를 시사

8) 이런 맥락에서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거지 나사로는 이런 불우한 자들의 모든 특징을 종합적으로 집중되어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눅 16:19-31). 김경진, 『제자도와 청지기도』, pp. 285-286.

9) 게르트 타이센은 고린도교회의 사회적 상황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고린도서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그 중 한 부류로 ‘여행’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다; Gerd Theissen, *Social Setting of Pauline Christianity*(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2), p. 73. cf. Wayne A. Meeks, *The First Urban Christians*(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3), p. 55. 국역본; 황화자 역, 『바울의 목회와 도시사회』(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10) 요아힘 예레미아스, 『예수시대의 예루살렘』(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3), pp. 382-385.

11) 이 ‘운명의 역전’ 개념은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자주 발견되는 누가신학의 또 다른 특징이다. 영국 에딘버러 대학교의 나의 은사인 데이빗 밀랜드 박사는 이 종말론적 역전의 모티프를 중심으로 이를 재물 주제와 연계하여 공관복음을 연구하였다(David Mealand, *Poverty and Expectation in the Gospels*[London: SPCK, 1980], p. 32). cf. 버히, 『신약성경 윤리』, p. 201.

해 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누가복음에서 가난이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문자적이고 실제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결론적으로 우리는 누가가 말하는 가난이란 결코 영적이거나 윤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가난임을 알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결론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견해에 반대하는 학자 중 대표적인 인물로 아마도 록 존슨(Luke T. Johnson)을 거론할 수 있겠다.<sup>12)</sup> 존슨은 누가가 말하는 가난한 자는 경제적인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문학적인 기능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그의 논리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가난이 경제적 용어가 아니라 영적 신분의 용어라는 전제 아래,<sup>13)</sup>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고, 그를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는 자들이 곧 부자라고 말한다.<sup>14)</sup> 이 논리라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부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배척해야 옳은데, 사실상 5장에 나오는 세리 레위(마태)나, 8장에 나오는 부유한 갈릴리 여인들, 19장에 나오는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 23장에 나오는 공회 의원 요셉 등은 부유한 인물들로서 마땅히 예수님을 배척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오히려 영접하였다.<sup>15)</sup> 따라서 존슨의 주장은 수용하기에 부담이 큰 논리라고 생각된다.

## (2) 예수님의 취임설교(4:14-30)

가난의 의미에 관한 앞서의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누가가 다른 복음서 기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음을 보았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취임설교를 중심으로 하여 이 점을 좀 더 풀어 설명하고자 한다.

사실 누가복음에서는 이 기사(記事)가 ‘주님의 취임설교’라는 제목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님의 고향 방문 기사’로 소개되고 있다(막 6:1-6; 마 13:53-58). 마가와 마태복음에서 이 기사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중반쯤 해서 일어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주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 초두(初頭)에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양자(누가 對 마가-마태) 사이에는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공통점으로 제시될 수 있는 부분은 누가복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불과 3절뿐이고, 나머지 12절은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양자 사이의 차이점 가운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두 가지 내용이다: 첫째는 가난한 자에 대한 예수님(누가)의 관심이고(4:18-19), 둘째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다양한 인물들의 등장이다(4:24-27). 그러나 두 번째 항목도 성격상 첫 번째 항목과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은 아니다.

**첫째, 가난한 자에 대한 예수님(누가)의 관심.**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것이다(막 1:15; 마 4:17). 그러나

12) Luke T. Johnson, *Literary Function of Possessions in Luke-Acts*(Missoula: Scholar Press, 1977).

13) *ibid.*, p. 139.

14) 존슨은, “누가는 재물을 수용과 거부의 역학을 표현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으며, 재물에 관한 용어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인간의 내적 성향을 보여준다”는 논리를 따라서, 재물은 백성들이 예언자(즉 예수님)를 거부할 경우에는 소외의 표시로, 영접할 경우에는 회심의 표시로써 기능하였다고 주장한다(*Literary Function*, p. 148).

15) 존슨의 논리와 그에 대한 필자의 반론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고자 하면, 김정진, 『제자도와 청지기도』 pp. 19-24를 참고할 것.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누가복음에는 이런 류의 설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대신 4장 18절이 주님의 첫 번째 설교로 소개되고 있다. 이 구절이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도 특이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설교의 내용이다.

누가복음의 전개에 있어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구절에서 초점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의 표현으로 누가가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sup>16)</sup> 구약성경, 그 중에서도 특히 창세기나 욥기, 그리고 잠언의 내용의 견지에서 바라볼 때 가난한 자들이 복음의 우선적 대상으로 지목된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다. 사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부(富)는 부지런하고 근면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반면에 가난은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에 대한 일종의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여왔다(잠 6:6-11; 10:4, 22). 이런 맥락에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족장들은 대개가 부자였고,<sup>17)</sup> 욥기서의 주인공인 욥 역시 거부(巨富)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러한 당대의 사회 분위기 가운데서 태어나 자랐던 예수님이 그 복음의 대상자로 우선 지목한 사람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은 참으로 기이하고도 놀라운 사실이야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하지만, 이 구절은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서, 누가의 가난한 자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sup>18)</sup> 여기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소개되고 있는 이들은, 포로 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인데, 앞서 논의한 대로, 이들도 역시 넓은 의미에서 볼 때 가난한 자의 범주 속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sup>19)</sup>

① 우리가 ‘포로 된 자’(aivcmalw, toij 아이크마로토이스)에 대하여 말할 때 ‘죄의 포로’라는 의미로 이해하기 쉽다. 물론 누가복음에서 이 단어는 이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1:77; 3:3; 24:47). 그러나 우리는 복음서에서 그의 자료의 선택 및 배열 작업을 놓고 볼 때, 누가가 인간의 영적, 육체적 측면에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단어를 영적인 의미로만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사실 주후 70년 로마에 의한 팔레스타인 정복 이후 수 천 명의 유대인들이 노예로 끌려가 로마 동부지방에 흩어져 살게 되었다. 이런 견해는 누가복음 21장 24절과 일치한다. 그런데 이들 노예 중 일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고, 아마도 기독교 공동체는 그 내부의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있었을 것이며, 누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그러한 관습을 승인하고자 하였을 것이다.<sup>20)</sup> 또한 우리는 고대세계에는 종종 빗으로 인해 포로가 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 사실 여기서 사용된(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에 해당하는 헬라이어(aifesij 아페시스)는 고전헬라이어와 칠십인역에서는 ‘빛의 탕감’이란 뜻으로 사용되었다.<sup>21)</sup> 그렇다면 빗으로 인해 포로가 되었다면, 그 역시 대단히 가난한 사람이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② ‘눌린 자’(teqrausme, nouj 테쓰라우스메누스, ‘압제 당하는 자’) 역시 우리는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③ ‘눈먼 자’(tufloi/j 튀프로이스), 즉 소경은 남의 도움이 없으면 전혀 살아갈 수 없는 사람으

16) 사도행전 1장 8절도 누가복음 4장 18, 19절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이런 프로그램 가이드 기능을 하는 구절을 책의 서두에 소개하고, 그에 따라 책의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 누가의 문학(저술) 기법은 대단히 놀라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17) 이삭은 한 해의 소출이 백 배나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참으로 대단한 물질적 축복이 아닐 수 없다.

18) 그렇다고 누가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나 회개의 문제를 경솔하게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 복음서 도처에서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있고(22:16, 18; cf. 22:29-30), 회개에 대해서는 부활 후 주신 설교에서 역시 강조하였다(눅 24:47).

19) P. F. Esler, *Community and Gospel in Luke-Acts*(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20) Esler, *Community*, pp. 181-182.

21) R. Bultmann, avfi,hmi, *TDNT* vol. I, p. 510.

로, 정녕 거지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러한 가난한 자들에 대한 누가의 관심은 복음서 자체 내에서도 자주 발견되면서 다른 복음서들과 차별화를 이루며 누가복음의 주요한 특징이 되고 있다. 누가의 이런 관심이 표현된 구절들은 다음과 같다(6:20; 7:22; 14:13, 21; 16:20, 22; 18:22; 19:8; 21:3. 아울러 이와 함께 누가복음에서 강조되어 나타나는 구제의 명령 또한 이 범주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3:11; 6:35, 38; 11:41; 12:33). 또한 누가복음 전체를 통하여 누가는 마가, 마태보다 ptwcoi,(프로코이)라는 단어를 더욱 자주 사용하고 있다.<sup>22)</sup> 그런데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가난한 자들이 보통의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따라서 남의 도움이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불구자, 소경, 문둥병자들과 같은 절대적 빈곤자들이라는 사실은 누가가 말하는 가난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여실하게 들어내준다. 한 마디로 이들은 ‘도시의 쓰레기’(urban drags) 같은 사람들이었다.<sup>23)</sup>

이 밖에도 제자들이 날마다(kaqV h`me,ran 카쓰 헤메란)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명령받고 있는 주기도문(11:3),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에서 등장하는 여인이 열흘 치 노동의 대가에 해당하는 열 드라크마가 그녀의 전 재산인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15:8-10),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성전에서 결례 예물을 드릴 때 가난한 자의 예물을 드릴만큼 예수님의 부모가 가난했다는 기사(2:24) 등을 놓고 볼 때, 우리는 누가가 이런 이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는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예수님 자신의 관심이면서 동시에 누가가 그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특별히 부각시켰을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에 나타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은 누가 공동체 내에 이런 묘사에 해당하는 가난한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줌과 함께 누가 공동체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반영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sup>24)</sup>

**둘째, 이 단락에서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들.** 여기서 말하는 등장인물은 모두 네 명이다 : 엘리야, 엘리사, 사렘다 과부, 그리고 나아만. 예수님이 자신을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역의 성격을 설명하는 가운데 등장한 이 네 명의 인물은 누가복음의 배경이 되는 누가 공동체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① 엘리야와 엘리사는 유대인이고, 사렘다 과부와 나아만이 이방인이라는 점은 이따도 누가 공동체가 이방인과 유대인의 혼합공동체였을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sup>25)</sup> 그러나 누가복음의 유력한 특징 가운데 하나인 보편주의를 근거로 하여 누가 공동체가 이방인만의 공동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서,<sup>26)</sup> 혼합 공동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 다수이고 유대인은 소수인 그러한 형태를

22) 마가와 마태는 그 복음서에서 각각 다섯 번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누가는 그것의 두 배인 열 번 사용하고 있다. 사실 ‘가난하다’는 뜻의 말은 ptwcoj(프로코스)외에도 pen,hj(페네스), evndeh,j(엔데에스)등이 있으나, 복음서에서 주로 등장하는 단어는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지란 의미의 ptwcoj(프로코스)이다.

23) Esler, *Community*, p. 181.

24) 누가 공동체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좀더 상세한 설명은, 김경진, 『제자도와 청지기도』, pp. 59-71을 참조할 것.

25) Esler, *Community*, p. 31; R. Maddox, *The Purpose of Luke-Acts*(Edinburgh: T & T Clark, 1985), p. 31; 버히, 『신약성경 윤리』, pp. 209-215. 또한 이 구절이 예수님의 사역을 예시한다는 점에서 볼 때 장차 예수님 자신과 교회의 이방인 선교사역을 예시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Evans, *Saint Luke*, p. 275.

26) J. A. Fitzmy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vol. 2(AB; New York: Doubleday, 1981), p. 59.

떠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② 세 명의 남자들 가운데 한 명의 여자인 사렘다 과부가 남자들과 함께 소개된 것은 여자를 남자의 재산의 일부인 부속물로 간주하지 않고 남자와 동등하게 간주한 것으로서, 여자들의 신장된 인권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여자들에 대한 이런 새로운 모습은 아마도 누가 공동체에서도 이미 진행중이거나, 혹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누가의 기대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어쨌든 누가복음 전개의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는 예수님의 취임설교에 여자가 등장한 것은 앞으로 전개될 주님의 사역에서 여자들이 차지하게 될 비중을 예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사렘다 과부와 나아만은 이방인들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기근으로 인하여 굶어 죽게 된 사렘다 과부는 가난하였고 아람국의 군대장관이었던 나아만은 부자였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발견된다(왕상 17:12). 이러한 차이점은 아마도 누가 공동체 내에 과부와 같이 가난한 자들과 나아만과 같이 부유한 자들이 함께 공존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 가난한 과부의 등장은 4장 18절의 취임설교의 첫 마디에서 가난한 자를 복음의 첫 번째 대상으로 지목한 주님의 메시지에 부합한 것으로, 주님의 사역의 방향을 예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그 취임설교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등 사회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골고루 등장시켜 거론함으로써 당신의 사역이 어느 특정한 한 부류의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이나 남자들이나 부자들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됨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취임설교에서 밝힌 이러한 원리와 원칙에 따라 행동하시며 그의 지상사역 동안 이 땅의 포로 된 자, 눌린 자, 눈먼 자, 즉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셨던 것이다(cf. 19:10).

### (3) 평지설교(6:20-26)

마태복음의 산상설교(the Sermon on the Mount, 5:1-7:27)에 상응하는 누가복음의 평지설교(the Sermon on the Plain)는 산상설교와 비교할 때,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더 많이 발견된다. 일단 사용된 분량을 놓고 볼 때 마태복음은 5, 6, 7 세 장에 걸쳐 도합 109절이지만, 누가복음은 6장 20절에서 49절까지 도합 29절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마태는 다른 날 다른 장소에서 행하여진 여러 편의 예수님의 설교를 주제별로 한데 묶어서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학자들은 누가의 평지설교가 예수님의 본래의 설교 형태에 가깝고, 마태는 이 본래의 기본 설교에 자신의 신학적 목적에 따라 몇 가지 다른 내용들을 추가했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마태가 변화를 준 내용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이 소위 「팔복」(八福 the Beatitudes) 말 씀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마태가 준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주제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마태가 변화시킨 부분이란 무엇인가?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여덟 가지의 복을 언급하고 있지만(마 5:3-12), 누가복음에는 네 가지의 복만을 언급하면서(6:20-22), 또한 이 네 가지 복에 대응하는 네 가지의 화(禍)를 함께 언급하고 있다(6:24-26). 그러면 여기서 누가복음의 특징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마태가 왜 네 가지의 화를 생략하고 대신에 네 가지의 복을 추가하였는지 그 이유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일반적으로 마태공동체는 부유하고 넉넉한 분위기였을 것이라던 것을 앞서의 탄생기사에서 잠시 언급한 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사실상 마태복음에는 부자들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별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부자들의 편에서 그들을 옹호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표현이나 기사들이 종종 발견된다.<sup>27)</sup> 이런 맥락에서 마태는 부자들에 대한 저주인 누가복음의 네 가지 화를 제거하고

대신에 구약성경 이곳 저곳에 나오는 네 가지 복을 더하고 있다 : 애통하는 자(5:4), 온유한 자(5:5), 마음이 청결한 자(5:8), 화평케 하는 자(5:9). 마태가 추가한 이 네 가지 복의 내용을 고려할 때 마태는 “미묘한 변화와 추가에 의해, 예수님의 천국의 선포에 답하여 어떤 품성적 특징을 개발하라는 권고를 강조하기 위하여, 그 전승을 ‘윤리화’하고 있는 것”이다.<sup>28)</sup>

이에 반하여 누가는 사복(四福)과 사화(四禍)를 그대로 소개하되, 특히 사복을 마태복음처럼 영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복의 내용을 비교하기 위해 원문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라고 말하는 데 반해, 누가는 그냥 ‘가난한 자’, ‘이제 주린 자’라고만 말한다. 사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실제로는 얼마든지 부자일 수 있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실제로는 전혀 목마르거나 배고프지 않을 수 있다.

② 누가는 ‘이제’(nu/n 胤)를 추가하여 현재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목마르고 배고픈 절박한 형편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③ 마태가 ‘애통하는 자’(oi` penqou/ntej 호이 펜쑤테스)라고 표현한 것에 대응하여 사용된 누가의 ‘우는 자’(oi` klai,ontej 호이 클라이온테스)란 표현은 보다 사실적이고 절실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이 말 클라이오(klai,w)는 문자 그대로 소리내어 운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검토해 볼 때, 우리는, 앞서 잠시 살펴본 바와 같이, 누가가 말하는 가난과 궁핍은 영적이거나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문자적이고 실제적인 개념임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④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복의 선언이 ‘저희들’(auvtw/n 아우톤; their ‘그들’)로 되어있으나, 누가복음에서는 ‘너희들’(u` mete,ra 휘메테라; yours)로 되어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축복이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선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더 현실감 있게 표현되었다.

이에 반하여, 부자들에게 대해서는 매우 위협적인 저주가 전혀 여과 없이 직설적으로 선언되고 있다. 이러한 부자들에게 대한 화(禍)의 선언은 사실 여기 한 곳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도처에서 발견된다(예 : 1:51-53; 16:25).<sup>29)</sup>

사복과 사화에 이어 소개되는 말씀 가운데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이다. 이 말씀들은 구제 주제를 다룰 때 자세하게 언급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축복을 선언한 이후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서 가진 것이 없어서 구하는 자들에게 그냥 주되 다시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권고한 것을 통하여, 가진 것이 없는 자들, 즉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의 또 다른 증거로서 이해하면 좋으리라 생각한다. 누가복음의 이런 특징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마태복음의 병행구절(6:38-48)과 비교할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 (4) 잔치석상에서의 교훈(14:7-14, 21)

누가복음 14장의 대부분은 주님이 초대받은 잔치석상에서 이루어진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다.

27) T. E. Schmidt, *Hostility to the Wealth in the Synoptic Gospels*(JSNT Sup. 69;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7), pp. 121-134.

28) 버히, 『신약성경 윤리』, p. 186.

29) 부자들에게 대한 재앙선언은 다음 장에서(‘부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에서 다뤄질 것이다.

그 가운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소위 '큰 잔치 비유'로 알려진 15절부터 24절까지는 마태복음에 병행되는 비유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사뭇 다르다. 어떤 이들은 본래의 전승에서 내용이 다른 기사를 누가의 의도적으로 잔치석상에서 되어진 일들로 연결시켜 놓았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반드시 그렇게 보아야 할 필요는 없다. 누가의 기록하고 있는 대로 보아도 전혀 무리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25절부터 35절까지는 누가복음에서 가장 진지하게 제자도 주제를 다루는 부분으로, 그 내용 역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는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 단원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누가의 특별자료인 두 번째 단락 중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언급이다. 13절(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의) 명단은 21절에서 '맹인들'과 '저는 자들'의 등장 위치만 바뀌었을 뿐 그대로 다시 등장한다. 특별히 21절의 이 명단은 마태복음의 병행구절(22:10)에 등장하는 '악한 자'와 '선한 자' 대신 등장함으로써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이러한 비교를 통하여 발견되는 것은, 앞서 산상설교와 평지설교의 비교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경제적 문제보다 윤리적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마태는 여기서도 선과 악의 도덕적 문제에 관심이 있는 반면에 누가는 가난한 자들과 불우한 자들과 같은 경제적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음을 알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런 상이(相異)함이 두 복음서 사이의 분명한 성격 차이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아울러 누가의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은,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누가복음 전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등장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누가는 특별히 '가난'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말하는 가난이 영적이거나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문자적이고 실제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된다.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이러한 문자적 의미의 가난은 누가-행전에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과 결부된 구제 명령으로 이어져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가난과 구제 명령으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누가의 재물신학은 사회적 복음의 특성을 지닌 누가신학의 핵심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다.

#### ※ 오늘의 적용점

1. 누가복음에서 주님은 문자적으로 실질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 또한 우리 주변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들을 찾아 섬겨야 할 것입니다.
2.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고, 열매이고, 증거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